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정기토론회-쟁점토론 ①

커밍아웃의 정치학 아웃팅의 윤리

일시 2005년 2월 2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장소 이화여자대학교 포스코관 지하 152호

공동주최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이화레즈비언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시선,
그 속에서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현실을 부수고 나온다는 의미인 '커밍아웃'

레즈비언 스스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레즈비언임이 드러나게 될 때,
이로 인해 사회의 차별과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아웃팅'

비슷한 듯 보이는 용어이지만,
실은 이 두개의 단어가 레즈비언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두개의 용어가 레즈비언 권리운동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토론회에서는 커밍아웃과 아웃팅을 둘러싸고 레즈비언 권리운동이 발하는 다양한 움직임과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다양한 사선과 비판의 목소리, 레즈비언 권리 운동과의 차이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 순서

발표 1 레즈비언 권리 운동과 커밍아웃의 정치학

발표자 수연(레즈비언인권연구소 연구활동가)

토론자 댄(언니네 운영위원 액션나우팀)

발표 2 레즈비언 "권리": 커밍아웃/ 아웃팅의 정치학 사이

발표자 페이퍼문(언니네 운영위원, 편집팀)

토론자 케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구 끼리끼리)

발표①

레즈비언 권리와 커밍아웃의 정치학¹⁾

수연/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연구활동가

◎ 레즈비언 권리와 커밍아웃

커밍 아웃이란 'coming out of the closet (벽장 속에서 나오다)'의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동성애자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숨기지 않고 자기 자신, 친구, 가족, 동료 등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나는 이성애자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성애자로 취급되는 사회(이성애중심사회)이기 때문에, 동성애자에게 있어 커밍아웃은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과정일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커밍아웃은 타인에게 하는 선언뿐 아니라 나 자신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커밍아웃은 이성애중심사회에서 동성애자 스스로 자신을 긍정하는 최초의 단계가 된다. 이성애가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는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을 부정하고 혐오하도록 강요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강요 혹은 강요된 어떤 것을 (내재화된) 동성애 혐오증, 호모포비아(Homophobia)²⁾라고 하는데, 이는 동성애자 자신이

1) 이 글은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의 오랜 활동가이자 레즈비언 권리운동가인 이해원과 박김수진(현 레즈비언인권연구소 연구 활동가)의 자문을 받아 쓰여졌다. 레즈비언 권리-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 가장 앞장 서 있는 두 활동가를 존중하며, 이 논의가 레즈비언들 간의 '차이'와 '공공성'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그들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 호모포비아는 동성애에 대한 이유 없는 공포, 레즈비언과 게이에 대한 편견,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는 '싫어함'이다. 이는 이성애의 우월성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동성애 섹스포비아, 이성애 차별주의, 동성애 차별주의, 동성애 부정주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동성애 공포증은 동성애

일반적 혐오의 대상인 동성애자가 됨으로써 겪게 될 불이익과 그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³⁾ 따라서 커밍아웃은 동성애자가 자신을 부정하는 단계를 지나 동성애자로서의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첫 단계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레즈비언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최초의 자신에 대한 커밍아웃은 '자연스럽게' 등장하지 않는다. 혼란과 부정, 자기 비하와 혐오의 시기를 거친 후 자기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긍정적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레즈비언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습득, 레즈비언 커뮤니티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박수진, 2004). 예를 들면, 레즈비언 소설을 읽고 레즈비언 친구들을 찾고 레즈비언 그룹들에 참가하는 것에 의해 레즈비언의 긍정적 자기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Levy, E. 1992). 이는 커밍아웃이 한 개인의 결단이나 선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관계망 속에서 상호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거쳐 레즈비언이 긍정적 자기인식의 시작점에 도달한 후에라도 타인에게 자신의 성적체성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이는 생존을 위한 사회적 필요와 공포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레즈비언은 현재의 직업을 잃지 않기 위해, 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만약 알았을 때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게 된다. 또한 가족에게 거부당한다는, 직업을 잃는다는, 아이의 양육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물리적인 폭력을 당할지도 모른

자를 조롱의 대상으로 정하고 대인관계상 오명을 씌우는 것이며, 이성애를 기초로 모든 관심이나 특권을 부여하는 사회적 역동성을 말한다. (여신, 2002)

3) 실제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561명 중 '성정체성 부정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50.3%인 282명에 달했고, 이 중 부정의 이유로 꼽은 첫 번째가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두려워서'라는 응답(29.6%인 143명)이었고, 두 번째가 '동성애자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23.2%인 112명)이었다. (박수진, 2004) 이는 모두 동성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가 아닌 자신이 동성애자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는, 배척된다는 공포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레즈비언들은 커밍아웃을 하고 싶어 하며 또한 한다. 그 이유는 자신이 진실한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에 충실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아닌 누군가인 척하는 것이 소모적이고 파괴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신, 2002). 또한 커밍아웃이 불러올 레즈비언 자긍심(lesbian pride)을 통해 행세(passing)⁴⁾와 이중성을 피하고 협박을 막고 정치적 연계를 형성하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거나 수치심을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Claudia Card, 2004).

실제로 한국사회의 레즈비언들 대부분은 전 생애에 걸쳐 커밍아웃을 하며 살아간다. 자신에 대한 커밍아웃,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에 대한 커밍아웃 등 개인적 관계 안에서의 커밍아웃부터 정치적 의미로서의 대사회적 커밍아웃까지 한 개인의 삶 안에서 다채롭게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커밍아웃이 이렇듯 한 레즈비언의 삶 안에서 매우 중요하고 일상적인 기능을 함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위에서 언급했지만, 레즈비언의 커밍아웃을 가로막는 무수한 현실적 이유가 존재하며, 한국사회의 레즈비언은 특히 커밍아웃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권리 운동가인 이해원은 한국사회에서 커밍아웃하기 더욱 어려운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그것은 한국사회 특유의 가족주의와 성문화 자체의 이중적 성격과 은밀성 등이다(이해원, 2005).

이 중 한국사회 레즈비언들이 가장 큰 갈등의 요소로 꼽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가족'과 연관된 것들이다. 한국의 레즈비언 5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 중 사회, 문화적 차

4) pass란 타고난 인종, 성 등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정체성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대개 특권적 정체성이나 행세를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체성으로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게 행세한다(역주 인용. 클로디아 카드, 강수영 역, 2004).

원의 어려웠던 점을 묻는 질문에 29.8%의 비율로 '혈연, 가족관계'라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박수진, 2004). 이는 한국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가치가 담고 있는 의미-가족에 대한 헌신, 효, 가족애, 단란함, 화목함, 자기희생, 분쟁과 갈등 없는 가족의 추구-가 레즈비언에게 있어서 또 다른 걸림돌이 됨을 의미한다. 즉 레즈비언임이 가족에게 알려졌을 때, 가족 구성원들이 보이게 될지도 모르는 혼란, 분노, 절망의 반응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레즈비언으로서 살아가는 것, 드러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레즈비언에게 '가족'문제는 한 레즈비언이 말한 것처럼 '죽는 그날까지 가져가야 할지 모를 갈등'이며, 레즈비언으로 사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차지한다.

-대 사회적 커밍아웃⁵⁾이 지닌 함의

한편, 다채롭게 개인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커밍아웃의 모습 중 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커밍아웃에 대해 살펴보자. 레즈비언 권리와 대 사회적 커밍아웃은 어떤 연관을 가지는가? 우선 한국사회 레즈비언의 대 사회적 커밍아웃의 대표적 사례로 1996년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이하 끼리끼리) 활동가들의 TV 커밍아웃을 예로 들 수 있다. 당시 SBS의 '송지나의 취재파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끼리끼리의 활동가 3인이 직접 출연했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사회에서 레즈비언들이 대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한 최초의 사건이었으므로 매우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우선, 존재하고 있었으나 '보이지 않았던' 레즈비언들의 존재가 공식적 경로를 통해 알려졌다.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레즈비언은 보이지 않도록 취급당해왔으므로⁶⁾, '가시화' 전략은 그 자체로 이성애주의에 대한

5) 실제 레즈비언의 삶에서 대 사회적 커밍아웃과 일상적 커밍아웃을 이분화시켜 구분하기 어렵지만, 이 글에서는 편의상 커밍아웃을 하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구분하도록 한다. 대 사회적 커밍아웃은 불특정 다수에게, 다소 정치적인 목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커밍아웃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일상적 커밍아웃은 개인적 관계망 속에서 특정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통해 친밀함, 신뢰 등 당사자의 개인적 가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통한 레즈비언의 '가시화' 전략은 이후 많은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 중 가장 큰 한가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했던 수많은 레즈비언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당시 프로그램에 끼리끼리와 레즈비언 전용 카페였던 '레스보스'가 소개되었는데, 방영 후 몇 달 동안 이를 시청한 수 백 명의 레즈비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고 한다⁷⁾. 당시 한국사회는 PC통신을 통한 큰 규모의 레즈비언 동호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인터넷 보급과 함께 인터넷 상의 소규모 커뮤니티가 조직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즉 이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상당한 수의 레즈비언들이 커뮤니티가 조직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접근하지 못한 레즈비언들, 30-40대의 레즈비언들을 비롯하여 고립되어 있던 레즈비언들이 '송지나의 취재파일'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쏟아져 나왔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레즈비언이 긍정적 자기인식을 획득하기 위해, 나아가 레즈비언에 대한 사회적 권리 획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레즈비언 친구, 모임, 커뮤니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단 한번의 방영으로 엄청난 효과를 낳은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를 낳은 레즈비언 활동가의 대 사회적 커밍아웃은 왜 지속되지 못했을까? (물론 이후에도 몇몇 레즈비언들과 대학에 속한 레즈비언 활동가들이 커밍아웃한 사건은 있었다.) 효과의 측면에

6) 게이 철학자인 리처드 모어는 억압자에게 한 집단을 제거하기 위한 차선책이 그들을 비가시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성원들에게 인식될 수 없는 집단은 정치적으로 무력해지기 때문이다(Richard Mohr, 1992).

7) 40대인 레즈비언 성은은 '송지나의 취재파일'이 방영되었던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 방송에서 레스보스 전화번호가 나왔잖아.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번호를 제대로 못본거야. 대충 짐작해서 한 열군데 전화하니 나오더라. 그 친구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먼저 가보겠노라고 하고, 내가 먼저 갔다가 얘기해준다고 했어. 그런 사람들 만나보고 싶어한거야. 레스보스에 다니면서 나는 완전히 그냥 풀어진 상태, 그런 정서상태였던 것 같아. 낯선 사람들을 아무 겁 없이 그렇게 만나기도 드문 일인 것 같아. 그 방송 보고나서 끼리끼리에 방문했던 사람만 300명이 넘었다고 들었으니까. 레스보스에는 하루에 100명 이상씩 왔었어. 최대 매상으로 1,500만원까지 올린 적도 있었지. 굉장했지. (박수진, 2004)

서 대 사회적 커밍아웃은 레즈비언 권리운동에서 하나의 전략으로써 채택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는 불가능한 전략이다. 위의 사례에서 '송지나의 취재파일'에서 커밍아웃한 세 명의 활동가는 이후 활동을 그만두었다. 그 이유는 커밍아웃 이후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등 개인적 손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커밍아웃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을 지지해줄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다져놓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모든 피해를 한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는 이들이 이후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에 타격을 입혔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한 레즈비언 활동가가 대 사회적 커밍아웃을 한다고 해도 이를 지지해줄 수 있을 만한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8)

서구의 경우, 엘렌 드 제너러스라는 배우가 1997년 유명한 시트콤 <엘렌>을 통해 커밍아웃한 사례가 있다. 그녀의 커밍아웃 이후 이 프로그램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막을 내렸다. 엘렌의 어리버리하지만 사랑스러운 무성적 캐릭터를 좋아했던 시청자들은,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적인 수밖에 없는 레즈비언의 일상을 보는 순간 골치 아파했기 때문이다.(일다, 2004) 엘렌의 커밍아웃은 그 엄청난 파장 이후, 방송사 측에서 '견고한 기반'에 의해 조기 종영되었다 할지라도 한국과는 매우 다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엘렌은 커밍아웃 이전에 이후 벌어질 효과에 대한 많은 준비를 단체들과 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방송국에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그 이후에도 엘렌은 배우로서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혜원, 2005).

이처럼 서구와 다른 한국사회의 대 사회적 커밍아웃 지형은 현재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끼리끼리 활동가인 이혜원은 한국의 흥커지모(홍석천의 커밍아웃을 지지하는 모임)의 예를 들면서, "흥커지모가 결성 이후 활동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해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동성애자 권리운동 진영과 커뮤니티에서 개인의 대 사회적

원래 - 실제 이유; ^{기저기반이 무엇인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음.}
 ↑ ^{많은 개인이 자신의 편견을 깨는 자라고 권용. 그리고 같은 단체들이 이를 방지.}

커밍아웃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한 레즈비언이 대 사회적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 결과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레즈비언 권리운동과 커뮤니티 내부에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혜원, 2005)

이러한 지적은 대 사회적 커밍아웃이 레즈비언 권리 중 일부의 '과제'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에 대해 예측하고 준비가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 사회적 커밍아웃이 무조건적인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이를 지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대 사회적 커밍아웃은 그 나름의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의 지지와 역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커뮤니티에 속한 레즈비언 개개인의 역량과도 무관하지 않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레즈비언 개개인의 일상적 커밍아웃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는 중요도를 갖는다.9)

◎ 커밍아웃의 권리와 아웃팅의 윤리

커밍아웃의 권리는 레즈비언 자신에게 있지만 이성애주의 사회의 다양

9) 한국사회 게이 활동가들이 일상적 커밍아웃을 하찮게 취급하고, 대 사회적 커밍아웃만을 중요한 정치적 전략인 듯 취급해온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를 지닌 동성애자로서 이들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대표적 게이 액티비스트인 서동진은 자신의 글에서 '동호회와 클럽의 동성애자를 넘어 시민으로서의 동성애자되기가 동성애자인권운동의 의무'이며, '시민으로서의 동성애자되기는 불가피하게 동성애자들의 커밍아웃을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동호회와 클럽의 동성애자되기, 즉 일상적 커밍아웃을 단지 개인주의적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오직 대 사회적 커밍아웃만이 이성애주의 사회를 깨뜨리기 위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상적 커밍아웃이 지니는 정치적인 의미와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자 개개인을 '비겁한' 존재로 몰아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의 책임을 동성애자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오류를 낳는다. (서동진을 비롯한 게이 활동가들과 레즈비언 활동가들의 논쟁을 자세히 보려면 끼리끼리 홈페이지(<http://kirikiri.org>)의 자유게시판과 동성애자인권연대의 홈페이지(<http://outpridekorea.com>)를 참조할 것)

게이 ; 이것이 온 레즈비언 커밍아웃 안 의미라는 게 아니냐

한 요소들로 인해 침해받게 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아웃팅 범죄를 예로 들 수 있다.

얼마 전 인천의 한 현직교사가 레즈비언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웃팅 협박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건이 있었다. 그는 레즈비언인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접근해 여관으로 불러들였다. 또한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집, 학교에 레즈비언임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레즈비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레즈비언임이 알려졌을 때 얻게 되는 피해-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거나, 부모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르는 상황-가 성폭력을 당해 얻게 될 고통보다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내린 판단이 실제로 옳든 그르든, 이들은 이성애주의 사회로부터 비롯된 각각의 폭력적 상황, 그 한가운데 내쳐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레즈비언이기 때문에' 입게 될 피해를 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 사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¹⁰⁾ 가장 손쉽게 레즈비언을 협박하는 방법은 '아웃팅'을 매개로 하는 것이고, 이를 실행했을 때 대부분의 레즈비언들은 협박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사회 레즈비언의 현실을 반영한다. 즉 아웃팅 범죄의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레즈비언이 '겉이 많아서'가 아니라, 레즈비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레즈비언권리운동단체인 끼리끼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처음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처음 이 캠페인을 제안한 끼리끼리 활동가 박김수진은 아웃팅 방지 캠페인의 목적

10) 위의 범죄 사례 외에도 끼리끼리에 접수된 대부분의 대 동성애자 범죄 사건들은 모두 아웃팅 협박을 매개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 최근 부산지역에서 청소년 레즈비언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강간사건을 말할 수 있다. 30대 후반의 남성이 여성으로 위장, 채팅으로 만난 10대 레즈비언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강간 후 사진을 찍고 레즈비언임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가해자는 강간한 피해자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를 유인 후 뇌주는 식으로 연쇄강간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건 또한 레즈비언임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여 벌인 범죄이다.

과 취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고의적 아웃팅과 아웃팅 협박을 빌미로 한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거나 차별금지법에서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도록 법제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례를 모았고, 캠페인을 벌여 여론화 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씩 인권을 보장받는 길을 닦아가는 것이 레즈비언권리운동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에 관해 일부 여성주의자들과 게이 활동가들은 '네거티브 전략'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 즉 이들의 논리에 의하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레즈비언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커밍아웃을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게이 액티비스트인 서동진은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아웃팅, 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동성애자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동성애자의 권리에 머물러는 동성애자의 현실안주적인 경향을 부추기는 아웃팅 반대에 반대한다'고 자신의 글에서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처럼 이들은 1)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단순한 프라이버시권의 문제이며 2)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개인의 현실안주적인 경향을 부추기고 3) 따라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동성애자의 더 나은 시민적 권리를 획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1)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아웃팅을 빌미로 한 범죄, 이의 해결과 대안의 마련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아웃팅 범죄는 단순히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즉 사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없다. 굳이 프라이버시권을 말하자면, 아웃팅 방지 캠페인에서 주가 되는 아웃팅 범죄가 아닌 '개인적 차원에서 타인의 성적체성을 거론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레즈비언 커뮤니티 전반에 걸쳐 일반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¹¹⁾

11) 한 여성주의자가 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수업시간에 내가 레즈비언임을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그 중 한명이 수업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면

2)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개인의 현실 안주적인 경향을 부추기고 벽장으로 다시 밀어 넣는 역할을 하기 위해 고안되지 않았다. 오히려 레즈비언 개인이 커밍아웃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와 지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즉 레즈비언임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의 정도를 낮추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레즈비언 개인에게 공포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 실제로 발생하는 수많은 피해사례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개인에게 '공포심'을 갖게 한다는 이유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개인의 배타적 '프라이버시권'을 위해 공공의 권리를 위한 '레즈비언의 시민사회 확장'을 위한 노력을 꺾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3) 이러한 점에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레즈비언의 권리 옹호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동진은 자신의 글에서 "아웃팅의 문제를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다루는 것에 반대하며, 성적 소수자란 점을 폭로하고 그로부터 그의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아웃팅이라면 이는 단호히 반대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는 시종일관 프라이버시권과 사회적 권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프라이버시권을 옹호하는 것이며 레즈비언의 사회적 권리와 무관하다고 말한다. 이는 결국 그가 남성적 관점(반 레즈비언적 관점)을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가 대사회적 커밍아웃이 '실존적 결단'임을 강조하고, 클럽과 커뮤니티의 동성애자들을 소심하고 이기적인 듯 묘사하여 마치 일상적 커밍아웃은 대수

그 사람을 아웃팅 가해자로 지목하겠느냐고 말이다. 당시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매우 황당했던 기억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명백한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이다. 따라서 끼리끼리에서 벌이는 아웃팅 방지 캠페인에서 다루는 아웃팅 범죄사건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상황-악의적 의도없이 타인의 성적체성에 관해 언급한 상황-에 대해, 또한 단지 주의를 주는 것으로 개선이 가능한 상대에 대해 '가해자'라는 용어를 쓰면서 '범죄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질문을 한 상대가 이후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의견을 냈으므로, 나는 그가 레즈비언이 처한 한국 현실과 아웃팅 방지 캠페인의 주가 되는 아웃팅 범죄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결론 지었다.

롭지 않은 듯 취급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사회의 레즈비언이 처한 현실, 한 사람의 지인에게 커밍아웃하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결단 또한 이러한 결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와 그 잠재력이 뿔어내는 효과를 모두 무시하는 것과 같다.¹²⁾

-나오면서

이 글에서는 서동진의 글을 중심으로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해명한다는 차원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커밍아웃을 둘러싼 좀 더 다양한 측면들, 아웃팅의 윤리에 관한 각기 다른 원칙들을 언급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글이 되었다.

이 글에서 주되게 말하고 싶었던 점은,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으로 불거진 '오해'가 실은 각기 다른 현실에 처해있는 레즈비언들에 둔감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레즈비언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부족한 것은 중요하다. 이는 (레즈비언이든 아니든) 나와 다른 레즈비언들의 경험을 손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가 말하든 누가 주장하든 간에 보편적 레즈비언 권리에 대해 말할 때, 아무도 자신의 경험만을 일반화할 수 없다. 이는 타인의 경험을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12) 서구의 경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레즈비언이나 게이 남성들이 커밍아웃하지 않았던(벽장속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그들 자신의 이익 혹은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가족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가족 안에' 두려는 친족의 욕망 때문이었다. 그러나 레즈비언들은 이를 거부하고 게이와 레즈비언 공동체에서 커밍아웃했다. 이는 벽장-어느 누구에게도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상태로 썬-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의 커밍아웃은 "빛을 보기"와 관계하기를 의미했으며, 이는 현대 서구 사회에서 커밍아웃이 의미하는 "공적영역으로 나가기" 보다는 메타포의 의미를 적절히 나타내고 있다.(Claudia Card, 2004) 이러한 관계하기로서의 커밍아웃, 메타포로서의 커밍아웃은 여전히 한국 레즈비언의 삶을 적절히 설명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존중의 노력이 모든 레즈비언 개개인의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해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서구의 레즈비언 철학자인 Claudia Card는 자신의 글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위엄은 개인의 위엄을 초월하며, 게이나 레즈비언 위엄에 대한 해로움은 단순히 개인이 겪은 해로움의 총합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그런 위엄을 보호하는 것이 개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환원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Claudia Card, 2004). 이는 레즈비언 개개인을 초월한, 레즈비언이라는 사회적 정체성에 대한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즉 레즈비언 개개인의 경험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개개인의 경험이 반드시 레즈비언 공공성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서 자신은 지도의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인식한 후 그 지도상에서 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 이후에야 다른 레즈비언의 입장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노력을 무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레즈비언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해, 레즈비언의 보편적 권리를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이러한 훈련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레즈비언들이 함께 목소리내기 위한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은 그러한 시작인 '나'의 위치에서 서술한 것이며, 보편적 지침으로써가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으로써 논의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Claudia Card(2004), 『레즈비언 선택』 강수영 역, 인간사랑

Richard Mohr(1988) 『Gays/Just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박수진(2004), 『한국 레즈비언 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20-30대 레즈비언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석사논문

여신(2002), "레즈비언들을 위한 심리학", 끼리끼리 웹진 또 다른 세상 <http://kirikiri.org/ttose>

이혜원(2005) 끼리끼리 내부분서. 미간행

'레즈비언 권리와 커밍아웃의 정치학' 토론문

맨/언니네트워크 운영위원

'레즈비언 권리와 커밍아웃의 정치학' 발제문은 대략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1. 레즈비언에게 커밍아웃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인정하지만 한국의 현실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는다
2. 레즈비언 자신에게 있는 '커밍아웃의 권리'는 아웃팅 범죄를 포함한 이성애주의 사회의 다양한 요소로 인해 침해받는다
3.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에 대한 일부 여성주의자들과 게이 활동가들의 비판에 대한 해명

발제문
* - 순서가 거꾸로
구분되어 있음

이것이 누군지 말하는
것은 너무 다양하다
원래의 의도도
일단

'아웃팅은 권리'라는
게 해가 될 수 있는, 성행위권 문제가 존재.

이 중 나는 앞의 두 가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세 번째 해명에서 이 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 아웃팅 범죄와 '개인적 차원에서 타인의 성 정체성을 거론하지 말자'는 내용에 대한 구분은 매우 좋다. 그러나 어떤 커뮤니티의 일로 한정하더라도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발생한 일련의 현상들, 소위 입막음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의 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해도 집단으로 이루어지면 물질적 사건이 되기 때문이고, 이것이 단순한 오독인지 필연적인 담론의 효과인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 아웃팅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라면 그 대상은 잠정적인 범죄자들이다. 발제문에서 언급된 사례는 아웃팅이 협박기제가 되어 폭력에 노출되는 레즈비언 청소년이다. 관련하여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 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협박이 문제라면 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협박을 하

게 되는 사람은 일단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이용하거나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아웃팅'은 안되니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의도를 행하라고 말해야 하는가?

아웃팅이 범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상황, 어쩌면 발제문에서 언급된 '악의적 의도 없이 타인의 성적체성에 관해 언급한 상황'에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이를 확대해석 하자면, 성적체성에 대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잠재적 가해자에게 알려질 수도 있는 상황도 범죄일 수 있다는 선언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맥락에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라는 명명에서 필자가 지목한 '오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본다.

- 캠페인의 대상이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인가 아닌가? : 만약 내부라면 '커밍아웃 커뮤니티 매뉴얼'같은 내용홍보와 함께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의 가해자 처벌지침이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방향이 중요할 것이다. 만약 외부라면 '아웃팅'이 아니라 '호모포비아'자체가 더 큰 키워드여야 하는 것 아닌가?

- 발제자는 '수많은 피해사례를 통해 이를 예방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사례보다는 적절한 처벌사례나 아웃팅이 피해가 아니라 힘들지만 커밍아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체적 설득과 교육방법이 아닐까 싶다. 그것이 없다면 예측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란 '공공 숨는 것'이고 아무리 숨는다 하더라도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부에서 함께 알던 사람이 내게 악의를 품고 작정하여 아웃팅시키는 가능성을 봉쇄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 그런 의미에서 다른 맥락들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사례 집적'과 '아웃팅은 범죄다'선언으로 구성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레즈비언들이 공포심을 갖게 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

- 아웃팅에 대해 서동진이 언급한 부분에 대한 반론 부분에서 서동진과 아웃팅 방지 캠페인 진행자간의 차이가 '남성적 관점(반 레즈비언적 관점)'로 지목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애주의 사회에서 대 사회적 커밍아웃은 게이와 레즈비언 모두에게 힘든 결단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으면 이성애주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기도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커밍아웃을 주요 전략으로 택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그야말로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본다.

- '한 레즈비언이 대사회적 커밍아웃을 했을 때...이를 지지해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레즈비언 권리운동과 커뮤니티 내부에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발제자의 글을 독해해보면 그 토대가 튼튼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 또한 사실일 수 있다. 그런데 그에 달린 각주는 게이 활동가들이 레즈비언 활동가와 단체, 일상적 커밍아웃을 하찮게 취급한다는 지적이다. 이 또한 게이와 레즈비언 커밍아웃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 없이 젠더의 문제로 규정되어 버린다. 이는 레즈비언 커뮤니티 자체가 마련해야 할 토대마련의 과제를 다른 문제로 치환해버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 작은 지적을 뒤로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그 토대에 대해 역사성 없는 완결적 이미지가 느껴지기도 한다. 엘렌의 커밍아웃이 그와 같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커밍아웃이 일상적/대사회적으로 많은 다른 커밍아웃들의 뒤에 이어졌기 때문이다. 레즈비언 커밍아웃에 대한 환경이 예전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은 가족과 직장, 그것도 매우 단기적으로만 본 진단이라고 생각한다. 요즘의 부모들은 홍석천을 알기에 '게이'라고만 해도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알고,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해고당했을 경우 찾아갈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곳도 생겨났다. 어쩌면 우리는 이전 활동가들의 커밍아웃이 놓은 돌다리들의 성과를 과소평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발표 ②

레즈비언 "권리":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정치학 사이¹³⁾

페이퍼문/언니네트웍 운영위원, 편집팀

그녀들의 커밍아웃, 나의 커밍아웃

한국의 레즈비언 커밍아웃에 대한 나의 기억은 1996년의 송지나의 취재파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레스보스가 어디냐고 묻는 전화가 쇄도하여서 SBS 교양제작국이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의 레즈비언들은 153 전화사서함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아날로그 세대였으므로, 레스보스의 존재조차 그다지 알려지지 않았던 터였다. 예로 영화나 소설 등에 나오는 레즈비언 말고, 실제로 레즈비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을 목격한 것은 그때 본 이 프로그램이 처음이었다. 이때 커밍아웃했던 끼리끼리 초동회 멤버들과 함께 1996년 당시 서울 중심의 대학가에서 레즈비언 액티비스트로 커밍아웃한 지혜, 그리고 폭력의 피해자이자 욕망의 주체인 여성들의 복잡한 맥락에 대해 도발적으로 문제제기했던 변영주와 변리나 등의 대중 강연 활동은 당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성애중심주의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고 이성애 정체성을 당연시했던 사람들에게 고민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또 레스보스에서 열렸던 싱글 레즈비언 여성들을 위한 싱글의 밤 행사, 보지다방, 퀴어영화제, 퀴어문화축제 등 레즈비언이 직접 만들었거

13) 2004년 7월 월간 언니네 특집 "커밍아웃"은 커밍아웃의 정치학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편집팀 3인의 글과,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의미와 역사를 담은 끼리끼리 활동가의 글, 총 16인이 참석한 오프라인 대담을 정리한 글, 4명의 레즈비언들의 커밍아웃글, 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을 정리한 액션나우 등으로 구성되어 발표되었다. 레즈비언인권연구소는 이 특집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여성성소수자커뮤니티 혹은 그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경향에 대해 비판했다고 보고 이에 토론을 제의했다. 본 토론회에서는 이 특집의 여는 글이었던 "왜 지금 다시 커밍아웃"을 본 토론회의 취지에 맞추어 수정·보완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나 주도적으로 함께 하면서 집단적인 커밍아웃을 했던 행사들은 곧 레즈비언 운동의 역사와도 맞물려 있다. 또 1998년 6월 28일, 29일에는 스톤월항쟁을 기념하여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의 레즈비언과 게이, 바이, 트랜스 젠더 등이 그 날을 “커밍아웃 데이”로 정해 친구한테 혹은 가족한테 혹은 게시판 등에 커밍아웃을 하는 작지만 아주 감동적이었던 커밍아웃 행사도 있었다.

커밍아웃은 당사자에게는 자긍심을 안겨주고 이성애 제도로 이루어진 사회에는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행동이다. 이때 커밍아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는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다. 꼭 텔레비전 카메라에 대고 “나 레즈비언이요”라고 하는 것만이 커밍아웃의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다. 이러한 복잡한 고민들 중에서도 여전히 레즈비언으로서의 드러내기는 끊임없이 시도되어왔고, 개인이 감수하는 커밍아웃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단적” 커밍아웃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 정체성 선택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이 모여서 한다고 선언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을 위한 행사인 퀴어 퍼레이드처럼 말이다. 2004년 퀴어문화축제의 슬로건이었던 “모두를 위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말은 커밍아웃으로 있을 수 있는 부담과 동성애 혐오에 노출되는 위험을 덜기 위한 정치적으로 올바르고 안전한 구호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하는 연대적 장치였다.

그녀들의 커밍아웃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총여학생회 선거 중이었던 나는 슬로건중 하나를 “I love Women”으로 정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슬로건을 여성주의자들이 말하는 여성임을 긍정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의식의 일부라고 생각했으나, 가끔 다른 사람들은 그 슬로건의 의미가 당신이 여성을 사랑하는 의미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그녀들의 커밍아웃은 8년 전 당시의 나를 정말 용기백배하게 만들었다. 한번은 사회대 새내기를 대상으로 성교육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이성애자를 전제로 한 성교육을 했다. 강의를 끝나고 어떤 여학생이 내게 물었다. “왜 이곳에 이성

애자만 있다고 생각하냐. 당신은 이성애자냐”는 질문이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동성애자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위한 성교육은 한 번도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배운 적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나와 버렸다.

이 사건은 그녀들의 커밍아웃이 내게 용기를 주었고, 여성주의가 레즈비언인 스스로를 받아들이기 보다 쉽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커밍아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나는 커밍아웃 이후의 언어와 세계를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경험이기도 했다.

커밍아웃의 정치학

커밍아웃은 그것이 스스로에게건 아니면 친구에게건 아니면 가족에게건 대사회적이건 간에 그 세계의 인식들을 크게 변화시킨다. 나는 현재 여성단체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3-4명의 활동가들이 조직 내에서 커밍아웃을 한 이후, 조직 내에서는 동성 커플에게도 결혼 휴가를 줄 수 있는 건지를 회의 때 논의하기도 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커밍아웃은 정말 시작일 뿐이다. 커밍아웃 이후 조직 내에서 이성애 중심적 제도는 없는지, 이성애 제도에 대한 조직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커밍아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지만, 또 한편 그만큼 쉽지 않은 시작이었기도 했기에, 커밍아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동성애자인권운동이 커밍아웃 없이 가능할 것인가 등을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커밍아웃이 보다 용이한 사람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개인적 자원의 문제를 성찰하지 않고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 운동가에 대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커밍아웃에 대한 의미부여가 대단했던 것에 비해, 커밍아웃을 한 활동가들이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침해를 입고 있으며 동시에 어떤 가능성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

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고, 대사회적 커밍아웃¹⁴⁾을 한 활동가와 그렇지 않은 활동가 라는 이분법이 횡행하면서 (대사회적) 커밍아웃은 운동가 간의 위계를 설정하는 문제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2001년 동성애자인권연대의 대표였던 임태훈씨가 공공연하게 레즈비언 활동가에게 대사회적인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다면 대사회적인 커밍아웃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식의 운동인 것처럼 비난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일부 여성주의 그룹에서 커밍아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녔는데, 케이(2004)¹⁵⁾는 여성주의 판에서 레즈비언 커밍아웃은 마치 소수자로서의 권력을 획득하고 당사자들의 정치적 발언력을 높여주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비판하며 그들이 “정말 많은 수의 레즈비언들이 커밍아웃과 관련해서 겪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그들 여성주의자들에게 얼마만큼 이해될 수 있을까. 그 점에 의문이 든다”고 한다. 일부 게이 운동가들과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커밍아웃을 통해 “권력화”되었으며, 그들의 커밍아웃은 다른 보통 더 많은 수의 동성애자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같은 진단은 커밍아웃은, 그 자체로 이미 고통스러운 것이 (어야한다)라는, 또한 커밍아웃은 차별과 폭력을 만나는 시작이자 각오라는 말이다.

나는 이 진단이 확실히 어떤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어떤 여성주의 판에서 노골적인 호모포비아와 성적소수자에 대한 배제가 있다는 비판과 병렬적으로 어떤 여성주의 판에서는 레즈비언이라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발언력을 높이는 측면이 되기도 한다는 걸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성주의 판에서의 레즈비언도 레즈비언이다. 이런 말은 여성주의 판의 레즈비언에 대해 타자화하는 말이다. 나는 심지어 한 지역의 레즈비언인권활동가로부터 성폭력 피해 경험 때문에 레즈비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자주 언급되는 언니네 자기만의 방에서 있었던 논쟁과정

14)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대사회적 커밍아웃은 언론에 얼굴을 공개하거나, 자신이 만나고 생활하는 모든 공적 사적 공간에 커밍아웃을 한 경우로 이해하고 있다.

15) 케이, 2004, “한국의 여성학과 여성운동은 한국의 성적소수자인권운동을 어떻게 배제시켜왔는가?” 한국여성학회

중에 있었던 일이다. 이 태도는 일단 커밍아웃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전제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 정체성을 긍정하는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으면 “진짜” 레즈비언이 아니라는 건가. 레즈비언은 도처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성애제도를 유지하게 만드는 일이다.

많은 경우 커밍아웃 이후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밍아웃을 감행하는 이유는 그 직면이 야말로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고, 또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밍아웃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커밍아웃 “이후”의 고통이며, 커밍아웃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고통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하는 실존적 행위 -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더 이상 최소한 스스로를 부정하거나 괴롭히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커밍아웃은 일단 자신을 “긍정”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걸 말하고 싶다. 그러므로, 커밍아웃에 대해서는 서로 얼마나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거나, 어디까지 커밍아웃 했는지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그 용기를 지지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에 대한 이해 혹은 오해

한편, 레즈비언 사회 내의 성폭력 문제를 커뮤니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논의가 지속되면서 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에서는 반성폭력 네트워크 활동을 벌였고, 상담과정에서 레즈비언 커플간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폭력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가족에게 아웃팅 하겠다는 위협이 접수되면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반성폭력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되어 레즈비언 인권운동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아갔다.

커밍아웃이 동성애자의 존재증명을 자신 혹은 타인에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면 아웃팅 방지와 동성간 성폭력 방지운동은 동성애자로서 안전

하게 살 권리를 위한 캠페인이었다. 커밍아웃에 관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슬로건은 “침묵은 죽음이다”,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라. 나는 동성애자다.” 이 두 가지이다. 침묵은 곧 죽음이다. 그렇다면 침묵하는 동성애자들은 모두 자살자인가.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동성애자들이 다시 벽장에 들어갈 자유 - 곧 사회적 자살을 권유하는 행동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원래 이 캠페인들은 안전하게 살 권리, 말하지 않을 권리였다. 말하지 않을 권리를 무시하고 말해야만 하는 의무를 강요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권리는 희망이 없는 권리이다.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이성애자들에 의한 테러와, 벽장 속으로 더 숨어들어가는 상황 중에서 약간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우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벽장 속으로 더 뽀뽀 숨는 순간부터 동성애자의 존재는 사라지고 권리를 누릴 주체 역시 회미해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성애 사회는 동성애자가 침묵하고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말하지 않겠다"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아웃팅을 방지하는게 아니라 입다물고 있으면 가만두겠다는 "클로젯팅"을 강요하는 이성애 사회의 음모에 다시 포획되는 자가당착일 수 있다.

또한 아웃팅은 "어떤 경우에도" 범죄인 것은 아니다. <게이 백>에 있는 나이팅게일이 언제 커밍아웃을 했었던가? 1593년 시인 크리스토퍼 말로우는 저명한 동성애자들의 명단을 작성했다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 말로우는 동성애자들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이성애 사회에 의해 처벌되었던 것이다.

동성애자 명단을 작성하고 역사를 만드는 일과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문제는 아웃팅이라는 행위인가, 아니면 아웃팅을 통해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사회의 시선인가. 커밍아웃이 위험하다면 누구 때문에 왜 위험한가. 우리는 그 위험과 싸우는 것이지 위험할지도 모르는 어떤 실체 없는 (실체 이상의) 공포와 싸우는 것은 아니다. 만약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동성애자의 존재를 계속 회미하게 만

들고, 이성애 제도를 더 실체 이상의 공포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캠페인의 위험은 커밍아웃의 위험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결과적으로 심각하게 침해하게 되는 일일 수도 있다. 마치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다가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만" 보장되는 (그러니까 밤길을 다니지 말거나 옷을 단정히 입으라는 등의 어이없는 충고) 피해자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걱정에 가깝지만)에 대해, 그것은 일부 대학가 여성주의자들이나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걱정이고, 정말 아웃팅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들은 오히려 아웃팅이 나쁘다는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케이, 2004. 같은 글 331p) "끼리끼리는 아웃팅으로 인해 레즈비언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폭력들을 문제화하고 되도록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는 사람들의 운신의 폭을 좁히기 위한 캠페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게끔 만들어보려는 시도에 가까운 캠페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레즈비언인 페미니스트들이 함께 활동하는 여성주의자 그룹 안에서 이 아웃팅 개념을 발언의 폭을 줄이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공포와 회피가 심각한 사람들의 경우, 끼리끼리의 캠페인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도 정보접근성이 낮아..(중략) 반면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높은 여성주의자들 내부에서는 오히려 관련 논의에 대해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까지 이르곤 한다는 것이다."

이 진단이 맞다면, 아웃팅 방지 캠페인에 대한 걱정은 그저 기우일 뿐이다. 하지만 정보접근성이 낮으면 낮아서 이용하기 어렵고, 높으면 높아서 "오해"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꼭 같이 고민을 나누어보고 싶다. 아웃팅 방지 캠페인은 필연적으로 커밍아웃을 했을 경우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알려주게 된다. 아웃팅은 나쁘다. 아웃팅은 호모포비아의 존재가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를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아웃팅 방지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호모포비아의 존재가 위력을 가지기 어려운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데 있을 것이다.

나는 한편으로는 이 캠페인이 커밍아웃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아웃팅 방지 캠페인만의 탓이 아니다. 동성애자가 점점 가시화되면서 차별 역시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나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자주 강의실에서 혹은 친척들에게 혹은 불특정한 누군가들에게 “너는 동성애자냐”는 질문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오랜 시간동안 꽤 자주 커밍아웃을 함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나의 성정체성은 그다지 급속도로 퍼지지 않는다. 내 앞에서 내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지 “이성애자”일 것이라는 전제로 대하는 사람들, 커밍아웃을 했지만 까먹거나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친지 및 친구들... 이들은 이러한 침묵의 이유를 아웃팅 방지이자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한다. 가시화 자체가 부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자라는 걸 본인의 동의 없이 말하지 말라는 약속만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항하기 어렵지 않을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차별하거나, 동성애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거나 라는 둘 중의 하나에서, 동성애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별 받지 않을 수 있는, 레즈비언 “권리”로 나아가기 위해 나(우리)는 아웃팅이 무력해지는 커밍아웃의 정치학을 생각하고 실천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 나는 언니네 특집과 이 발제문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끼리끼리가 다 받아 안아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한 명의 레즈비언으로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존재를 붙들고, 언젠가 더 많이 더 크게 이성애 사회를 옥하면서 커밍아웃을 하고 싶다는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아직 가보지 않은 사회에 대한 꿈, 커밍아웃이 시작한 정치학과 레즈비언 권리를 다시 얘기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언니네에 오는 레즈비언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과 인터넷에서 만난 레즈

비언들과 레즈비언 인권운동 활동가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레즈비언은 도처에 있다는 믿음으로.

'레즈비언 "권리":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정치학 사이에 대한 토론문

케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구 끼리끼리)

1. 레즈비언의 권리로써의 커밍아웃

커밍아웃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로 이 글을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커밍아웃의 의의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나는 토론자이지만, 토론회에서 이루어질 논의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에 대해 한번쯤 다시 짚고 넘어가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어쩌면 이 토론문의 모든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로만 채워질 지도 모르겠다. 이는, 일차적으로 나 스스로가 이 논의의 맥을 잡는데 어려움을 좀 덜 겪고자 함이다.

나의 자긍심과 다른 레즈비언들의 자긍심을 위해 꼭 필요한, 커밍아웃. 나는 커밍아웃이라는 말을 내 입으로 발음할 때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입을 통해 발음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긴장되고 동시에 두근거리는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곤 한다.

그럼, 어렵지만, 시작해볼까.

모든 동성애자는 '커밍아웃' 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또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레즈비언에게도 역시 해당하는 권리이다. 모든 레즈비언은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라고 이름붙일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타인들에게 자신이 레즈비언임을 알릴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레즈비언이라는 자신의 존재 조건을 매개로 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권리는 레즈비언이 누려야 할 당위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이 권리라는 것은 말이 권리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그 권리를 찾기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만 한다. 우리 스스로 주장하지 않고서는 결코 쟁취할 수 없는 권리가 바로 이 '커밍아웃' 할 권리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뼈아프게 알고 있다. 애초부터 갖고 있었어야만 하는 것이 옳았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싸움을 통해 얻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커밍아웃할 권리라는 것이다. 사실, 동성애자인 누구에게나 커밍아웃할 권리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 그러한 현실은 커밍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필요없는 상태와 다름이 없는 상태일 것이다. 커밍아웃할 권리란 동성애자들 개개인이 온전히 누려야 할 당위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는 커밍아웃할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고 주장해야 하는 현실이 우리는 그래서 슬프다. '커밍아웃할 권리를 가진다' 는 말이 무색할만큼 엄혹한 호모포비아적 사회가 두렵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한 가지. 우리가 한 단어로 뭉뚱그려 말하곤 하는 '커밍아웃' 이란 실로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종류의 커밍아웃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릇같은 용어이다. 우리는 이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내적인 커밍아웃,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그 안에서 드러내고 지지받는 커뮤니티 내부에서의 커밍아웃,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 직장이나 학교 등 자신이 속한 공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커밍아웃, 레즈비언(동성애자) 권리 운동을 하며 다른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의 연대 활동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레즈비언(동성애자) 권리에 대해 발언하는 과정 속에서의 커밍아웃,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커밍아웃 등 커밍아웃의 수위와 폭은 이렇듯 정말이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수위와 폭의 커밍아웃이 그 수위와 폭을 매개로 비교당할 수 없고 비교당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레즈비

언(동성애자)이 자신이 커밍아웃 할 대상과 범위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받을 권리 역시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레즈비언(동성애자) 개개인이 하는 커밍아웃은 각각 그 자체로 존중받고 지지받아야 한다. 정체화 하는 과정에서부터 커밍아웃하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전과정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레즈비언(동성애자)들은 그러한 커밍아웃을 감행하기 위해 발휘해야만 했을 용기와 의지를 격려받아야만 한다. 그런 지지와 격려가 레즈비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인 행동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는, 소위 '대사회적 커밍아웃' 이라고 일컬어지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커밍아웃이 동성애자 권리 운동에 필수적이며 그러한 커밍아웃을 할 생각을 하지 않는 - 엄밀히 말해, 하지 못하는, 이라고 해야 옳겠지만 - 이들이 자신의 '프라이버시권' 을 보호하고자 하는 '협소한' 태도에 간혀 궁극적으로는 전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비접하고 응졸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서동진의 생각이 결코 옳지 않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자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끼리끼리>가 단체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커밍아웃하고자 하는 욕구와 커밍아웃하는 행위는 언제나 지지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밍아웃할 엄두를 전혀 못내는 조건에 처해 있는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는, 엄연한 현실 인식의 차원에서 그렇다. 동성애자들에게 커밍아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일정 정도 이상의 커밍아웃을 하지 않는/못하는 이들을 깎아내릴 수 없다는 것에도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성애자 권리 운동이 커밍아웃 없이 가능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와도 다르다.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이 주체가 되어 벌여 나가는 동성애자 권리 운동은 어떤 식으로든 당사자들의 커밍아웃 없이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커밍아웃이 소위 '대사회적 커밍아웃' 만을 의미하는 거라면 이야기는 물론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앞서 이미 언급한 다양한 종류의 커밍아웃 중 그 어떤 형태의 커밍아웃이건 개별 당사자에게 실존적 차원의 결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다. 더불어 그러한 실존적 결단을 전체 운동 내지는 동성애자의 보편적 권리 운운하며 가치절하 하는 것은 각각의 결단이 지닌 무게를 간과하는 오만한 태도라는 이야기 역시도 명확히 말하고 싶다.

그러면 레즈비언(동성애자) 권리 운동 진영은 레즈비언(동성애자)의 커밍아웃 할 권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당연히도 커뮤니티 내외부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촉발해 내고 레즈비언(동성애자)들 간에 서로 힘 주고 힘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자임하는 것이 권리 운동 진영이 맡아 가야할 의무일 것이다. 이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레즈비언(동성애자)이 커밍아웃 이후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고자 하는 노력은 필히 따라와 줘야 할 터이다.

결국 레즈비언(동성애자)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실적인 여건이 그걸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켜 내는 것, 그것이 레즈비언(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의 필요성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2. 아웃팅 당하지 않을 레즈비언의 권리

그렇다면, 아웃팅은 과연 무엇인가? 아웃팅은 동성애자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혹은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타인에 의해 자신의 성적체성을 폭로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성애주의가 뿌리깊고 호모포비아가 횡행하는 사회일수록 동성애자에 대한 아웃팅은 당사자에 대한 지독한 폭력이자 범죄일 수밖에 없다. 아웃팅을 당한 당사자는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대적인 환경에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혐오적인 시선, 각종 불이익, 물리적 폭력,

성폭력 등, 드러난 동성애자가 겪게 되는 억압적인 상황은 이루 다 열거할수도 없을만큼 다양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논의의 장을 벌이고 있는 이 한국 사회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결코 덜한 호모포비아를 지닌 사회가 아니다. 유교적 가부장제와 이성애 주의가 빚어내는 한국적인 호모포비아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성애자들이 벽장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심지어 동성애자 개인이 혼자서 조용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현실이다. 동성애자의 존재를 최소한으로나마 '인정' 받기까지의 세월이 너무나 길었다는 사실도 그 점을 반증해 준다.

하지만 레즈비언을 비롯한 한국 사회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권리 운동이 태동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동성애자 권리 운동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동성애자들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사투를 벌여온 결과이며 실로 긍정적인 성과임에 분명하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고, 서로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갖기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기획하고, 대사회적 발언들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조직해 온 성과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무수한 이들이 다양한 차원에서 감행한 커밍아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룹을 형성하고 권리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커밍아웃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성애자 권리 운동의 토대가 되어 주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점진적인 가시화라고 해도 그것이 곧장 동성애자들이 누리는 권리의 지수를 향상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우리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가시적/비가시적인 폭력들과 직면하게 된다. 가시화되기 전까지 동성애자들이 겪어야 했던 근본적인 문제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끝끝내 숨어지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

가시화가 시작된 이후에 동성애자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일 것이다. 직접적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문제 말이다. 가시화 전이건 이후건 '동성애자로서의 생존' 이 그 자체로 위태롭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다. 허나, 가시화 이후에는 그 문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피부에 와닿는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 때 아웃팅 방지 운동은 그야말로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할 권리를 위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성애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극대화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걸맞는 운동이다. 아웃팅 방지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동성애자 본인이 커밍아웃할 대상과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커밍아웃 이후의 상황을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커밍아웃 이후의 상황들 속에서 안전할 권리 등을 쟁취하고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티지넷 사진방과 관련된 사건이 좋은 예가 될 것 같다. 티지넷 사진방은 티지넷을 이용하는 여성 이반들이 자신의 사진을 올리면서 자신을 피알하고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다. 이 공간은 그러므로 티지넷 이용자들이 무척 적극적인 방식으로 커밍아웃 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파급속도가 엄청난 인터넷 공간에 동성애자가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행위. 그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행위이다. 그 곳에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그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박수를 보내주어도 모자랄 만한 용감함으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티지넷이라는 공간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그 공간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티지넷 바깥으로 자신이 게시한 자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유포되리라는 생각을 쉽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 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그녀들의 자발적인 커밍아웃을 비난하는 행동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들 중 몇몇이 게시한 사진이 네이버의 포토 앨범에 레즈비언이라는 타이틀로 묶여 공개돼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네이버로 자신의 사진이 퍼날라다진 몇명이 <끼리끼리>로 그 점을 신고해 왔고, 네이버 쪽으로 삭제 조치 요청을 하는 것을 <끼리끼리>에 위임했다. 그래서 <끼리끼리>는 네이버 권리침해센터에 신고하는 것을 통해 해당 포토앨범을 삭제토록 했고, 티지넷 이용자 및 여러 여성 이반 커뮤니티에 무단으로 타인의 정보를 다른 곳으로 빼가는 일을 자제하라는 캠페인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지속적인 홍보 계획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이 때 우리가 커뮤니티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의 신변을 위해 가급적 사진 게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 서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일을 삼갑시다. 티지넷에서 공유되는 사진 및 개인 정보등을 본인의 허락없이 다른 곳으로 유포하는 일을 하지 맙시다. 자칫하면 당사자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여성 이반들 개개인이 발생 가능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할지도 모를 가능성을 줄여보고자 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신고를 접수하면서 아웃팅 방지 운동에 대한 커뮤니티의 요구를 체감한다. 아웃팅을 미연에 방지하고 아웃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다.

그럼 이제 커밍아웃과 아웃팅의 고리를 이야기해 보자. 나는 커밍아웃과 아웃팅을 연결시켜서 얘길 한다면 그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이미 위에서 언급했듯 커밍아웃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커밍아웃 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공포를 조장한다거나 오히려 개개인의 동성애자를 클로제팅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식으로 논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식의 논의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웃팅은 레즈비언 주체가 자기 의지로 하는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자기 의지로 하는/해야만 하는 것은 커밍아웃이지 아웃팅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웃팅은 동성애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타인이 하는 폭로일 뿐이다. 그러므로 아웃팅 방지 운동을 동성애자가 '말하지 않을 권리' 를 주장하는 것으로 사고하는 것에도 오류가 있다. 아웃팅 방지 운동은 '아웃팅을 당하지 않을 권리' 를 위한 운동이지 '어지간하면 커밍아웃을 하지 말자' 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웃팅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끼리끼리>가 시작하게 된 것은 말하지 않을 권리를 찾고자 하는 소극적인 지향의 산물이 아니라 말을 하고도 안전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그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는 권리를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연하자면, '말하지 않을 권리' 라는 것 자체가 동성애자의 보편적 권리를 쟁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아예 단정지어 버릴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보편적 권리 쟁취를 위해 동성애자들의 힘을 모아나가는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 한 명 한 명에게 투사로써의 자질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동성애자가 본인이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서 스스로 내린 결심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 역시도 권리 운동의 한 차원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커밍아웃 운동과 아웃팅 방지 운동은 결코 반대어가 아니다. 결코 반대적인 의미일 수 없다. 커밍아웃 할 권리의 지지대가 되어 주는 것이 아웃팅 당하지 않을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일진대 그 두 단어가 반대어일 수는 없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 그 노력의 한 가운데에 아웃팅 방지 운동이 있다.

나는 가끔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생존자말하기대회' 를 떠올려 본다. 나는 그 대회를 떠올릴 때마다 그 시공간이 구성되는 방식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성폭력 피해를 정말 믿을 만한 이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그 '생존자말하

기대회'의 공간일 것이다. 참가자가 자신의 경험이 아무데나 퍼져 가
 십거리로 전락하리라는 조금의 염려도 없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대회의 목적일 것이다. 마음 놓고 말하고 지
 지받고 그로부터 힘을 낼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 누가 이러한 것들
 을 가능하게 하는 '생존자말하기대회'의 방식을 여성이 주체가 될 가
 능성을 차단하는 네거티브적 방식이라고 비난할 것인가. '생존자말하기
 대회'에는 필시 네거티브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방법상의 미덕
 이 있다. 그건 바로, 피해 당사자의 욕구를 존중하고 그 욕구들이 펼쳐
 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회의 기본적인 목적의식과 닿아
 있는 미덕일 것이다.

나는 <끼리끼리>의 아웃팅 방지 캠페인 역시도 그와 비슷한 미덕을
 지닌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레즈비언(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충
 실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한다. 캠페인의 내용을 보다 레즈비언(동성
 애자)들이 처한 현실에 근접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라면 과제랄까.

• **테이퍼:** 커밍아웃 이후 리전 확인. 아웃팅 위험에 노출되기도. 그러나
 그러나 내리 커밍아웃 하면서 늘 레즈비언을 리전으로 인식하고 —
복합 두렵기만 내가 커밍아웃 레즈비언으로서 살아야 할 연하하여
 한다면 **피드백**을 받기도 함.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커밍아웃 하기 싫어도 된다는 말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것은 문제.
 늘 **혼란과 갈등** 속에 있었을 때 커밍아웃 이후 내가 지금의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병마.

• **케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의 사회적 환경 — 사회수용 제사할 면 것은 커밍아웃 내부는 커밍아웃 것.
 아웃팅의 종류와 **다양**으로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필요**에 대한 **커밍아웃** 내부의 아웃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고민. **↑** 피해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활동을 같이 하며 **안전**
능력 지극히 중요. 사회수용 못하니까 **주변** **안전**수칙처럼 **사회**에서 **부담** 풍항시키기 위해 **안전**
 현실에 **적응**하여 **안전**함이 **관계**.

* '절대로 안전한 권리'는 아웃팅의 의미가 아니라 '커밍아웃의 리터럴'으로 푸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의에 대해서는 뭐가 더 좋은 거 **안전** **복합** **문제**.

- **박종:** 대부분의 상황 사회가 아웃팅과 연결. 그러나 아웃팅 행위가 중요.
 커밍아웃은 **안전**이 **안전**한 **관계**. 이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 **나루:** 아웃팅 방지 캠페인을 더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벗기려고 한 때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내가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 **채윤:**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동시에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커밍아웃을 할 수 있는, 커밍아웃을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 <케이>

- **케이:** 아웃팅 방지 캠페인이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다양하게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 **테이퍼:** 커밍아웃 이후의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 **채윤:**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 **박종:**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 **안전**한 **관계**를 **안전**한 **관계**가 **커밍아웃**의 **안전**.